

인디아, H₂O₂ 생산능력 확대

증설 및 신규참여 계획 잇따라 ... 90년대말 공급과잉 우려

인디아의 과산화수소 생산능력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인디아의 과산화수소 생산기업은 내쇼날과 아시안 두기업으로 생산능력은 각각 2만톤, 5000톤이며, 내수의 급증을 배경으로 대규모 증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디아의 과산화수소 증설계획 (단위 : 1000M/T)			
구 분	생산 능력	증설계획	시 기
내쇼날 · 파옥사이드	20	30	미정
아시안 · 파옥사이드	5	13(2000년까지 50)	미정
우자라드 · 알카리스 & 케미칼		11	1996.3
힌드스탄 · 인더스트리얼케미칼		20	1995.말
힌드스탄 · 오트가부케미칼		10	1997.중반
코샤리슈가스 & 케미칼		10	계획중
리라이언스 인더스트리		50	"
샤리아시즈 & 케미칼		4	"

내쇼날은 3만톤, 아시안은 1만3000톤을 증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존 기업과는 별도로 신규 기업들의 참여가 예상되고 있다. 신규 참여를 계획하고 있는 3기업이 계획중인 생산량은 6만4000톤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인디아의 과산화수소 생산능력은 90년대말에는 비약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공급과잉도 우려되고 있다.

<화학저널 1995/5/1>